



만나다

KAPE, 축산 명인을 만나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농장 대표

# 최영주

##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김해 대동농장의 하루!

고객홍보팀



1988년 홀로 계신 어머니 부양을 위해 당시 잘 되고 있는 운수업을 정리하고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그의 고향인 김해로 내려와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한 대동농장의 최영주 대표. 처음부터 농부가 아니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뒀다는 그는 29년째 한우사육 노하우로 오늘의 대동농장을 이루었다. 그는 한해 동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판정결과를 받은 농가를 선정하는 시상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제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 당당하게 한우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저력이 있다. 최영주 대표를 만나 그의 한우사육 노하우를 들어보자.



06:00

### 눈뜨자마자 축사로



새벽 6시 눈뜨자마자 축사로 향한다. 250두의 한우에 사료를 주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다. 대동농장의 한우는 하루에 두 번 TMF 배합사료를 주며 한우와 교감한다. 한때는 1,000두까지 사육했었다는 최영주 대표는 한우를 키우면서 원칙만 잘 지키면 어려움이 없다고 자부한다. 29년 동안 크고 심한 고비는 없었지만 딱 한번 부르셀라병으로 전수를 살처분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라며 두 번의 아픔을 격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축사를 떠나지 않고 있다.



12:00

### 하루에 두 번 축사 소독

소 사육농가에 가면 가축분뇨 냄새 등 특유의 냄새들이 나는데 대동농장의 축사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축분뇨 냄새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구수한 냄새가 날 정도로 청소와 소독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어떤 병충해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소독기로 병충해 퇴치를 하며 하루에 두 번씩 소독을 해주고 있다. 대동농장은 일단, 환경이 좋고 공기가 맑다. 주변에 다른 농장이 없는 관계로 구제역이 발생해도 외부 농장으로부터 피해가 없어 좋으며 좋은 환경을 자랑하였다.



17:00

### 축산인과의 기술교류로 상생

그의 성공 노하우 중 하나는 소 출하 회전율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보통 28개월에서 30개월로 송아지 입식과 출하를 빠르게 회전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축산 농가들과 기술을 교류하고 공유함으로써 상생하고 있다. 또한, 김해축협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꾸준히 받으며 성실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만의 배합사료 비법은 TMF 발효사료로 축협배합사료와 비지, 맥주박, 보리(맥강) 등을 혼합하여 15~20일 발효 숙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영주 대표는 “축산인들은 축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소가 무얼 먹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좋을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는 축산은 꾸준한 비전이 있으며 앞으로 500두를 목표로 축사를 증축할 계획이며 더 노력하여 자가배합사료를 100%사용하여 조금 더 크게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㉞

